

대학생의 관계지향성이 대인관계문제에 미치는 영향:

정서표현양가성의 매개적 역할

The Effects of College Students' Sociotropy and Ambivalence over Emotional Expressiveness on Interpersonal Problems

박지애(Jiae Park)¹, 한세영(Sae-Young Han)^{2*}

¹Dept. of Child Development, Ewha Womans University, ²Dept. of Child Development, Ewha Womans University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effects of sociotropy, as perceived by college students, and ambivalence over emotional expressiveness on their interpersonal problems. A total of 248 college students (127 males and 121 females) living in Seoul and Gyeonggi responded to questionnaires, which included items related to sociotropy, ambivalence over emotional expressiveness, and interpersonal problem. First, college students' sociotropy was correlated with ambivalence over emotional expressiveness and interpersonal problems. It was suggested that people with high level of sociotropy experienced more emotional expressive conflict and interpersonal problems than people with low level of sociotropy. Second, male and female college students' ambivalence over emotional expressiveness partially mediated the relation between sociotropy and move toward other people, one of the interpersonal problem's subtypes. Male college students' ambivalence over emotional expressiveness has fully mediated the relation between sociotropy and move against other people, one of the interpersonal problem's subtypes. And female college students' ambivalence over emotional expressiveness has fully mediated the relation between sociotropy and move away from other people, one of the interpersonal problem's subtypes. According to gender difference, different interpersonal problems appeared. This study's results may provide some important suggestions for interpersonal problems in college students by increasing understanding of multiple dimensions according to their internal tendency and emotional expressiveness.

▲주제어(Key words): 관계지향성(sociotropy), 정서표현양가성(ambivalence over emotional expressiveness), 대인관계문제(interpersonal problem), 대학생(college students)

I. 서론

서울에 소재한 한 대학교 상담센터의 조사에 따르면, 대학 신입생들이 대학생활에서 경험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 문제로 대인관계문제(29.87%)를 꼽았고, 또한 상담센터에서 실제로 도움을 받고 싶은 문제로도 대인관계문제

(21.64%)를 꼽은 것으로 미루어 보아, 많은 대학생들이 고등학생 시기의 좁은 대인관계에서 벗어나 폭넓은 관계를 형성하게 되는 시기의 대인관계에 큰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Yonsei University Counseling Center, 2012). 본 실태조사는 대학교 신입생들에게 이메일을 통해 설문을 배부하고 실시하였으며 응답한 신입생은 총 638명(문항별

• 본 논문은 석사학위논문의 일부임

* Corresponding Author: Sae-Young Han, Department of Child Development, Ewha Womans University, Daehyun-dong, Seodaemun-gu, Seoul, Korea, tel: +82-02-3277-4380, E-mail: evenhow@ewha.ac.kr

무응답자 포함)으로 남학생이 250명으로 47.35%, 여학생이 278명으로 52.65%이었다. 대학생 시기는 성인기에 진입하는 시기로서, 청소년기에 다 이루지 못했던 자기탐색과 정체성 형성을 이루는 시기이며(J. Arnett, 2000), 특히 타인과 친밀한 관계를 맺는 것이 주요 과업으로 여겨진다(E. Erikson, 1980). 성인으로서 첫 걸음을 떼는 대학생 시기에는 자기 자신 뿐만 아니라 타인과 세상에 대해 새로운 이해가 정립되어야 한다(C. Park & A. Al, 2006). 타인과의 친밀감을 형성해야하는 대학생 시기에 친밀하고 효율적인 대인관계를 맺는 것에 실패하면 고립감이나 공허감과 같은 심리적인 증상을(S. Kwon, 1995), 적응적이고 만족스러운 대인관계를 맺게 된다면 적응적이고 만족스러운 생활을 경험할 수 있다(S. Jang, 2007). 즉, 대인관계문제는 대학생시기의 주요한 발달적 이슈인 것이다.

신 프로이드 학파의 학자들은 성격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외부요인으로 가족관계와 대인관계에 특히 큰 관심을 두었으며, 개인의 대인관계에 대한 불안이 성격의 한 측면인 신경증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다. 그 중 K. Horney(1992)는 인간을 사회문화적인 환경 안에서 잠든 자아를 실현할 수 있는 사회적 존재로 보았는데, 이러한 사회적인 존재인 개인은 대인관계에 대한 불안으로부터 벗어나 안정을 얻기 위한 욕구를 가지며, 이를 위해 무력감, 고립감 및 적대감과 같은 기본적인 불안을 처리하는데 사용하는 방어적인 태도를 신경증적 욕구라고 보았다. K. Horney(1992)는 이러한 기본적인 불안에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행동들을 세 가지의 신경증적 경향성인 ‘사람들에게 향함(movement toward other people)’인 순응형, ‘사람들에게 맞섬(movement against other people)’인 공격형, ‘사람들에게서 멀어짐(movement away from other people)’인 고립형’으로 설명했다.

본 연구에서는 K. Horney(1992)의 신경증적 성격 이론을 바탕으로 대인관계문제를 접근한 E. Ahn(2012)의 연구와 같이 대인관계문제를 ‘사람들에게 향함’, ‘사람들에게 맞섬’, ‘사람들에게서 멀어짐’의 세 가지의 요인으로 구분하였다. 첫 번째, ‘사람들에게 향함’은 자신은 열등하고 무력한 존재이지만 타인은 강하고 우월하다고 판단하여 타인에게 의존하고, 모든 타인에게서 끊임없는 인정과 관심을 받으려고 과도하게 노력하는 태도이다. 두 번째, ‘사람들에게 맞섬’은 타인을 지배하려는 욕구와 우월감을 느끼려는 욕구가 강하며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타인을 공격하고 비난하며 자신의 패배와 두려움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이다. 세 번째, ‘사람들에게서 멀어짐’은 타인과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는 것보다 자기만의 세계에서 혼자 시간을 보내는 것을 더 추구하는 은둔적인 태도이다(E. Ahn, 2012;

H. Jung, 2014).

최근 연구자들은 이러한 대인관계문제를 유발하거나 원인이 되는 성격이나 정서 등 대학생의 심리적 과정에 대해 탐색할 필요성을 제기하였고, 본 연구는 특히 그 중 성격의 한 측면으로 관계지향성을, 정서의 한 측면으로 정서표현양가성을 살펴보았다. 우선 관계지향성에 대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A. Beck(1983)은 특정 스트레스에 대한 취약성을 나타내는 성격을 관계지향성(sociotropy)과 자율지향성(autonomy)의 두 유형으로 구분 지었다. 관계지향성 유형은 타인과의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기를 원하는 특성을 보이고, 자율지향성 유형은 성취지향적인 특성을 보인다. 자율지향성이 높은 사람들은 자신의 목표를 성공적으로 달성함에 따라 타인에게 인정을 받고 싶은 소망을 가지고 있으며, 성취를 통해 타인으로부터 받은 인정이 상실될 것을 두려워하며(S. Blatt, 1974; S. Blatt & D. Zuroff, 1992), 과도한 성취욕구, 완벽주의, 과도한 자율성 및 개인주의 성향을 나타낸다(S. Blatt & S. Schimann, 1983; B. Park, 2000). 반면, 관계지향성이 높은 사람들은 타인과 친밀하게 관계를 맺고 의존하기를 원하지만 거절에 대해 강한 두려움을 가진다. 그렇기 때문에 관계지향성이 높은 사람들은 대인관계에서 집착을 나타내며, 타인의 의견에 대해 높은 관심을 가지고 쉽게 동조하는 동시에 타인에게 거부당하는 것에 대해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S. Blatt, J. D’Affitti, & D. Quinlan, 1976). 관계지향성이 높은 사람들은 타인의 반응에 따라 자신의 신념과 행동을 타당화하기 때문에 타인에게 인정받기 위한 제한적인 행동을 하는 경향이 있다(M. Friedman & M. Whisman, 1998). 또한 이들은 대인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타인을 기쁘게 하려하고, 기분을 맞추려고 한다(D. Clark, A. Beck, & G. Brown, 1992). 즉, 관계지향성이 높은 사람들은 대인관계에 의존적인 성격임을 의미한다.

선행 연구들은 자율지향성이 높은 사람들이 부정적인 사건을 더 많이 경험하거나 부정적인 감정을 더 많이 느낀다는 결과에 대해 다소 비일관적인 결과들을 보이고 있지만, 관계지향성이 높은 사람들이 사회적인 결과와 부정적인 상관을 가진다는 결과에 대해서는 일관된 보고를 하고 있어, 관계지향성이 대인관계문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검증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두 가지 요인 중 적응 및 사회적 관계와 유의한 상관을 보인 관계지향성을 중심으로 대인관계문제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대인관계를 중요시 여기는 관계지향성이 높은 사람들은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경험하는 수용과 애정의 정도에 따라 자신의 가치를 평가한다. 그렇기 때문에 타인에게 인정을

받기 위해 제한적인 행동을 할 가능성이 높다(M. Friedman & M. Whisman, 1998). 즉, 보다 높은 수준의 관계지향성을 가진 사람들은 부정적인 대인관계 생활 사건을 더 많이 경험한다는 것이다(D. Birgenheir, C. Pepper, & M. Johns, 2010). 또한 관계지향성이 대인관계문제에 미치는 영향을 가까운 사람과 상대적으로 가깝지 않은 사람과의 문제로 나누어 살펴본 연구에 따르면, 관계지향성이 높은 사람들은 가깝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과도하게 돌보는 행동을 보이지만, 가까운 사람들에게는 거만하게 굴거나 계산적이고, 복수심이 강한 상반된 모습을 보인다(T. Sato & D. McCann, 2007). 관계지향성이 높은 사람들은 대인관계를 통하여 자기인식을 긍정적으로 확립하려 하고 사회적인 압력에 의존하여 자신의 행동과 사고를 통제하려 하며(A. Solomon & D. Haaga, 1994), 대인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타인을 기쁘게 하고, 타인의 기분을 맞추려 하는 모습을 보인다(D. Clark, A. Beck, & G. Brown, 1992). 관계지향성과 심리적 적응 간의 관계는 문화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기도 하는데, 기존 서양 연구에서는 의존(dependency)으로 명명되어 심리적 부적응과 상관을 보이던 관계지향성의 하위요인이 한국에서는 부적응적인 영향이 완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타인의 기대에 부합하여 행동해야 한다는 암묵적인 사회적 기준이 심리적인 압박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결과를 보였다(A. Cho, H. Kim, K. Oh, & N. Khatri, 2011). 이러한 연구결과들에 근거하여 대학생의 관계지향성이 대인관계문제에 영향을 미칠 것을 예측해볼 수 있다.

한편, 대인관계문제와 상관성이 있는 또 다른 변인으로는 정서표현양가성을 들 수 있다. 개인의 사회적 적응을 위해서는 대인관계에서 자신의 욕구를 이해하고 이를 자유로운 방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하며(R. Schaefer, 1983), 자신의 정서 상태를 알고 그에 대한 경험을 타인과 자연스럽게 나눌 수 있을 때 자신과 타인을 이해할 수 있게 되고 부적응적인 정서를 해소할 수 있다. J. Pennebaker (1985)는 정서를 표현하는 방식보다 표현의 욕구를 억제하는 것이 더욱 부적응적인 것임을 밝혔다. 이를 바탕으로 L. King and R. Emmons(1990)는 정서표현의 욕구가 있으나 이를 억제하고 갈등하는 것으로, 정서를 표현하고 싶지만 할 수 없거나 정서를 표현하고 싶지 않지만 표현해 버린 것, 또한 정서를 표현한 후에 후회하는 것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인 정서표현양가성(Ambivalence over Emotional Expressiveness)의 개념을 제안하였다. 정서표현양가성이란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고 싶은 욕구를 통제하거나 억제하면서 경험하게 되는 갈등으로(L. King & R. Emmons, 1990), 양가감정(ambivalence)과 같이 심리

적으로 두 개 또는 그 이상의 동기나 목적이 대립하는 상황에서 경험하게 되는 갈등이 아니라 한 가지 상황에서 동시에 긍정과 부정의 지시 둘 다를 갖는 정신활동의 경험성이다(E. Bleuler, 1950). 정서표현을 양적인 측면으로만 접근하기 보다는 정서표현을 하는 과정에서 개인이 갈등하거나 억제하는 부분과 같은 질적인 측면을 포함한 접근이다(H. Lee & M. Lee, 2013).

일반적으로 정서표현을 많이 하는 것이 정신적 건강에 좋을 것이라는 상식과 다르게 정서표현의 빈도나 강도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감정 표현의 욕구가 있는데도 이를 적극적으로 억제하려는 과정에서 경험하는 내적 갈등이 심리적 부적응과 더 큰 상관성이 있음이 보고되고 있다(H. Choi & K. Min, 2005). 감정 표현의 욕구를 억제하는 것뿐만 아니라 개인의 정서와 상반된 감정을 표현하기도 하는데 이 또한 역기능적인 효과를 나타낸다. 즉, 감정의 표현이나 억제와 같은 이분법적인 구분보다는 이 둘 간의 양가감정인 정서표현양가성이 대인관계 갈등을 설명하는데 중요한 변인임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다.

정서표현양가성과 대인관계문제 간의 관련성을 살펴본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정서표현양가성과 대인관계문제 간에 정적 상관이 나타난 연구들이 다수 존재한다(J. Lee, 2009; K. Lee & B. Kim, 2010; C. Shin, S. Yoo, & K. Yun, 2013). 정서표현양가성이 높은 사람들은 언어적인 표현과 비언어적인 표현 간의 일치성이 떨어지기 때문에(M. Mongraine & L. Vettese, 2003), 정서의 의사소통 기능을 잘 활용하지 못한다고 볼 수 있는데 이로 인해 사회적 지지를 인식하지 못하거나 대인관계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보고되었다. 정서표현양가성이 높은 사람들은 타인으로부터 지지나 공감을 받지 못한다고 지각하며, 친밀감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대인관계에서 사회적 지지를 추구하기보다는 회피전략을 사용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R. Emmons & P. Colby, 1995). 정서표현에 대해 양가적인 사람들은 자신의 감정이나 욕구를 드러내는 것이 부정적인 대인관계 결과를 가져 온다는 기대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M. Mongraine & L. Vettese, 2003). 또한 정서표현양가성이 높은 대학생일수록 대학생활에 쉽게 적응하지 못하고, 대인관계에 어려움을 더 많이 호소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J. Kim & Y. Lee, 2011; K. Lee & B. Kim, 2010). H. Choi and K. Min(2007)의 연구에 따르면, 정서표현양가성이 높은 경우 대인 민감성과 적대감 등 대인관계와 관련된 증상들이 더 많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대인관계문제를 불러일으키는 이러한 정서표현양가성은 관계지향성으로부터 영향을 받는다는 선행연구들이 존재

한다. 관계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성향이 높은 사람들은 타인으로부터 받는 피드백을 통해 자신의 신념과 행동을 타당화 시킨다(A. Beck, 1983). 관계에 과도하게 의존하며 집착하는 사람들은 대인관계적인 상황에서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대인관계에서 갈등을 경험하거나, 타인에게 거부당하거나 상실됨을 두려워하여 스트레스를 경험할 가능성이 더 높으며 이러한 사건들에 대해 높은 수준의 부정적인 정서를 느끼는 경향이 있다(N. Allen, D. Horne, & J. Trinder, 1996; S. Blatt & D. Zuroff, 1992). 여성의 경우, 관계지향성과 같이 대인관계에 있어 높은 의존성을 보이는 경우 본인이 느끼는 정서를 숨기거나 억누르는 경향을 보인다고 한다(D. Jack, 1991). 즉, 타인과의 관계에서 의존성이 높은 사람들은 타인의 기분을 맞추거나 타인으로부터 거부당하지 않기 위해 정서를 표현하는 것에 갈등을 느끼거나 억누르는 양가적인 태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관계의존성이 정서표현양가성과 유의한 관계가 있다는 선행 연구가 있다(M. Mongrain & D. Zuroff, 1994). L. King and R. Emmons(1990)는 여성이 타인에게 화나 질투와 같은 부정적인 정서보다 사랑, 애정과 같은 긍정적인 정서를 표현하는 것에 있어 보다 양가적이라는 것을 밝혀냈으며 이러한 현상은 여성의 대인관계 의존성과 타인을 기쁘게 하려는 소망이 정서표현양가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관계지향성과 정서표현양가성 간의 관계와 정서표현양가성과 대인관계문제 간의 관계에 비추어서 정서표현양가성은 관계지향성과 대인관계문제 간의 관계를 매개하는 변인으로서 기능할 것을 예상해볼 수 있다. 관계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성향이 높은 사람들은 본인이 느끼는 정서를 감추거나 억제하는 경향을 보이고(D. Jack, 1991), 정서를 억제하는 성향으로 인해 대인관계에서 더 많은 문제를 경험할 것을 예측할 수 있는 것이다.

한편, 관계지향성, 정서표현양가성 및 대인관계문제에 대한 선행연구들은 성차를 암시하거나 보고하고 있다. 정서표현에 대하여 남녀의 성차를 살펴본 선행 연구 결과들을 살펴보면, 여성은 남성보다 더욱 표현적이고 남성은 여성보다 정서표현을 억제한다는 결과가 있는 반면(J. Gross & O. John, 1995; J. Gross & R. Levenson, 1993), 이와는 상반된 연구 결과로, 여성이 남성보다 부정적인 정서를 억제하는 경향이 크다는 연구결과도 있다. 한국의 기혼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 따르면 기혼 여성들이 가족 내에서 직접적으로 감정을 드러내는 것을 억제하는 경향이 두드러지고 신체 증상을 통해 간접적으로 표현하는 경우가 다수 있다고 한다(K. Kim & S. Kwag, 1992). 이와 같이 정서표현을 억제 하거나 정서 표현에 앞서 내

적으로 갈등하는 정서표현양가성이라는 개념을 성차에 따라 살펴본 연구들의 결과가 일관적이지 않아 정서표현양가성에 대한 남녀 차이를 이해하는데 한계가 있다. 나아가 관계지향성과 정서표현양가성의 관계에 대해 보고한 선행 연구들은 대부분 여성을 대상으로 연구하고 있어 관계지향성이 정서표현양가성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성차가 있을 수 있음을 암시하고 있으나, 남성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다수 진행되지 않아 성차에 대한 구체적 검증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대인관계문제에 있어서도 성차가 보고된 바 있어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의존성에서 비롯된 대인관계문제가 많다는 연구결과가 있고(Y. Cho & J. Park, 2005), 남학생보다 여학생에게서 정서표현이 대인관계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연구결과 또한 존재한다(J. Jang & J. Kim, 2008).

이처럼 다수의 선행 연구들이 관계지향성과 정서표현양가성의 관계, 정서표현양가성과 대인관계문제의 관계를 정적으로 보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 변인을 함께 살펴본 연구가 없으며, 관계지향성과 대인관계문제 간의 관계에서 정서표현양가성의 매개적 역할을 살펴본 연구 또한 존재하지 않는다. 이에 관계지향성과 대인관계문제 간의 관계에 매개변인으로서의 정서표현양가성을 탐구하는 것이 의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대인관계가 발달적 과업에서 중요한 이슈로 부각되는 대학생 시기에 대인관계 문제를 예측할 수 있는 심리적 요인들을 파악하여 성인기에 진입하는 대학생의 심리적 적응을 도울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의의를 둘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남녀로 나누어서 성차에 따라 세 변인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도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남녀 대학생의 성차에 따라 효과가 있는지를 함께 탐구하는 것이 의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본 연구는 성인기 초기에 해당하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여, 대학생의 관계지향성과 정서표현양가성이 대학생들이 경험하는 대인관계문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보고자 한다. 나아가 정서표현양가성이 대학생의 관계지향성과 대인관계문제의 관계에서 가지는 매개적 역할을 탐색하고, 이를 성에 따라 구분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바탕으로 상담 장면에서 남녀 대학생들이 호소하는 대인관계문제의 양상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대학생들의 내적인 성향과 정서표현성을 고려하여 대학생들의 적응력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데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 목적 하에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1> 남자 대학생의 관계지향성과 대인관계문제 간의 관계에 대한 정서표현양가성의 매개효과가 있는가?

- 1-1. 남자대학생의 관계지향성은 대인관계문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 1-2. 남자대학생의 정서표현양가성은 대인관계문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 1-3. 남자대학생의 관계지향성은 정서표현양가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 1-4. 남자대학생의 정서표현양가성은 관계지향성과 대인관계문제 간의 관계를 매개하는가?

<연구문제 2> 여자 대학생의 관계지향성과 대인관계문제 간의 관계에 대한 정서표현양가성의 매개효과가 있는가?

- 2-1. 여자대학생의 관계지향성은 대인관계문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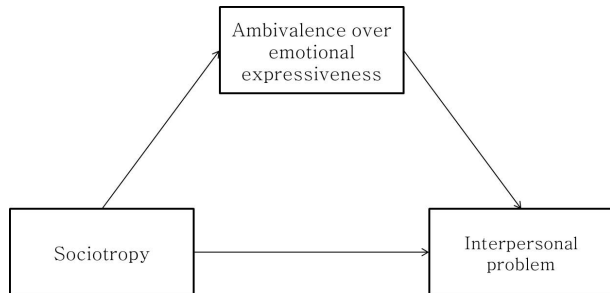


Figure 1. Research model: Mediating effects of ambivalence over emotional expressiveness in the relationship between sociotropy and interpersonal problem in male and female college students

- 2-2. 여자대학생의 정서표현양가성은 대인관계문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 2-3. 여자대학생의 관계지향성은 정서표현양가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 2-4. 여자대학생의 정서표현양가성은 관계지향성과 대인관계문제 간의 관계를 매개하는가?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서울시와 경기도에 소재한 9개 대학교의 학생들 248명이며,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은 다음과 같다. 대학생의 성별은 남학생 127명(51.2%), 여학생 121명(48.8%)로 이루어졌으며, 1학년 45명(18.1%), 2학년 48명(19.4%), 3학년 34명(13.7%), 4학년 121명(48.8%)이었다. 대학생들의 전공을 살펴본 결과 인문사회계가 140명(56.5%)로 가장 많았고, 이공계 87명(35.1%)가 그 다음으로 많았다. 아버지의 교육수준은 전문대졸 이상(192명, 77.4%)이 고졸이하(56명, 22.6%)보다 많았으며, 어머니의 교육수준 또한 전문대졸 이상(151명, 60.9%)이 고졸이하(97명, 39.1%)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Table 1>).

2. 측정도구

1) 관계지향성 척도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의 관계지향성을 측정하기 위해

Table 1. General factors of participants

Variables	Groups	Frequency	Percentage(%)
Gender	Male	127	51.2
	Female	121	48.8
Grade	1th	45	18.1
	2nd	48	19.4
	3rd	34	13.7
	4th	121	48.8
Major	Humanities	140	56.5
	Science and engineering	87	35.1
	Medical science	11	4.4
	Art	7	2.8
	Undetermined	3	1.2
Education level of father	High school diploma or less	56	22.6
	College degree or over	192	77.4
Education level of mother	High school diploma or less	97	39.1
	College degree or over	151	60.9

성격 양식 질문지(Revised Personal Style Inventory; PSI-II)를 사용하였다. PSI-II는 A. Beck et al.(1983)이 개발한 SAS(Sociotropy-Autonomy Scale)를 보완하여 C. Robins et al.(1994)이 제작한 도구로 본 연구에서는 M. Lee(2000)가 번안한 것을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관계지향성을 측정하는 24문항, 자율지향성을 측정하는 24문항을 포함해 총 48문항이다. 본 연구에서는 관계지향성을 측정하기 위해 관계지향성 척도 24문항만을 사용하였다. 관계지향성은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까에 대해 걱정하는 타인 반응에 대한 관심(7문항), 타인에게 의존하는 성향을 나타내는 의존성(7문항),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는 행동을 나타내는 기분 맞추기(10문항)의 세 가지 하위차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단일 요인으로 분석에 사용하였다. 문항의 예로는 '사람들이 내게 어떻게 반응할지에 대해 신경을 많이 쓴다.', '나는 다른 사람의 비판에 대해 매우 예민하다.', '나는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대해 느끼는 바를 근거로 해서 내 자신을 평가한다.' 등이 포함되어 있다. 점수가 높을수록 관계지향적인 특성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관계지향성의 내적합치도(Cronbach's α)의 값은 .85로 나타났다.

2) 정서표현양가성 척도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의 정서표현양가성을 측정하기 위해 L. King and R. Emmons(1990)가 개발한 정서표현양가성 질문지(Ambivalence over Emotional Expressiveness Questionnaire: AEQ)를 H. Choi and K. Min(2007)이 번안하여 타당화한 AEQ-K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자기방어적양가성 13문항과 관계관계적양가성 8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자기방어적양가성은 자신의 정서를 표현할 수 있다는 자신이 없거나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모르는 정서표현에 대한 두려움을 측정하고 관계관계적양가성은 인상을 관리하거나 대인관계를 긍정적으로 유지하려고 표현을 억제하는 등 정서표현과 관련한 행동의 통제를 측정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AEQ가 하위요인 간 상관관이 높아 단일 구성개념으로 보았다는 L. King and R. Emmons(1990)의 연구결과에 근거하여 하위요인을 구분하지 않고 단일차원으로 사용하였다. 문항의 예로는 '종종 내가 느끼는 바를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고 싶지만 웬지 망설여진다.', '내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고 싶지만 그로 인해 나 자신이 당황하게 되거나 상처 받게 될까 걱정된다.' 등이 포함되어 있다. 점수가 높을수록 정서표현의 양가적 특성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정서표현양가성의 내적합치도(Cronbach's α)의 값은 .89로 나타났다.

3) 대인관계문제 척도

본 연구에서는 대인관계문제를 평가하기 위하여 S. Hong et al.(2002)이 구성한 한국판 대인관계문제검사 원형척도의 단축형(Short form of the KIIP Circumplex scales; KIIP-SC)을 사용하였다. 이는 IIP-C(대인관계원형검사)와 IIP-PD(대인관계 성격장애 검사)를 통합하고 보완하여 한국형 대인관계문제 척도(Korea Inventory of Interpersonal Problems; KIIP)에서 문항변별도, 위치모수, 문항정보에 근거하여 추출된 총 40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 척도는 통제지배(PA), 자기중심성(BC), 냉담(DE), 사회적 억제(FG), 비주장성(HI), 과순응성(JK), 자기희생(LM), 과관여(NO)의 8가지 하위영역으로 나누어 구성되었으며, 각각 5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본 연구에서는 E. Ahn(2012)의 연구와 같이 K. Horney(1992)의 이론을 적용하여 대인관계문제를 3개의 영역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하위요인 중 비주장성, 과순응성, 자기희생은 '사람들에게 향함'으로, 통제지배, 자기중심성, 과관여는 '사람들에게 맞섬'으로 냉담, 사회적 억제는 '사람들에게서 멀어짐'으로 나누어 구성하였다. 하위요인 '사람들에게 향함'의 문항의 예로는 '내가 원하는 것을 말하기가 어렵다.', '다른 사람들을 실망시키지 않으려고 지나치게 애쓴다.' 등이 있고, 하위요인 '사람들에게 맞섬'은 '독단적으로 판단하고 결정하여 다른 사람들과 마찰이 있을 때가 많이 있다.', '다른 사람의 입장을 지지해 주기가 어렵다.' 등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하위요인 '사람들에게서 멀어짐'의 문항의 예로는 '친구 사귀기가 어렵다.',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는 자리를 자주 피한다.'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점수가 높을수록 각 하위요인의 특성인 사람들에게 맞서거나, 멀어지거나, 향하는 특성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대인관계문제 척도의 총 내적합치도(Cronbach's α)의 값은 .91로 나타났고, 각 요인의 내적합치도(Cronbach's α)의 값은 사람에게 향함 .85, 사람에게 맞섬 .83, 사람에게서 멀어짐이 .90이었다.

3. 연구절차

본 조사는 2015년 9월 1일부터 10월 10일까지 서울시와 경기도에 소재한 9개의 대학교 대학생들 250명을 대상으로 자기보고식 질문지를 실시하였다. 연구자가 서울시와 경기도에 소재한 대학교를 직접 방문하여 쉬는 시간을 보내고 있는 대학생들에게 연구의 의도를 설명하고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주고 질문지를 실시하였다. 질문지의 실시 시간은 약 15분 정도였으며, 실시 후 설문에 대한 소정의 보상을 제공하였다. 수거된 질문지들 중 답이 누락

되어 있거나 무성의하게 답변한 자료 2부를 제외하고 248부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4.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SPSS 21.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분석하였다. 첫째, 연구 참가자의 사회 인구학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빈도와 백분율을 산출하였고, 주요 변인들의 기술적인 경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각 측정 변인별로 평균 및 표준편차를 산출하였다. 둘째, 조사도구의 신뢰도를 알아보기 위해 Cronbach's α 계수에 의한 내적 합치도를 산출하였다. 셋째, 예비분석으로 성별에 따른 각 연구변수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t 검정을 실시하였고, 변수들 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서 Pearson의 상관계수를 산출하였다. 마지막으로 본 분석에서는 각 변인들의 영향을 보기 위해서 단순 및 중다회귀를 실행하였으며, 대학생의 정서표현양가성이 관계지향성과 대인관계문제 간의 관계에서 매개적 역할을 하는지 살펴보기 위해 단순 및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관계지향성을 독립변인으로, 대인관계문제를 종속변인으로, 정서표현양가성을 매개변인으로 하여 R. Baron and D. Kenny (1986)가 제안한 매개 검증 절차를 사용하여 3단계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III. 연구결과

1. 관계지향성과 대인관계문제 간의 관계에서 정서표현양가성의 매개적 역할

대학생의 관계지향성과 정서표현양가성이 대인관계문제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단순 및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기 전, 공차 한계와 분산팽창계수를 살펴본 결과는 <Table 3-5>에 제시되었고, 모든 변수에서 다중공선성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W. Berry & S. Feldman, 1985). 또한 Durbin-Watson의 검정통계량은 1.79-1.99로 기준 값인 2에 매우 근접하고 0 또는 4에 가깝지 않기 때문에 잔차들 간의 상관관계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회귀분석 실시에 무리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관계지향성과 대인관계문제 간의 관계에서 정서표현양가성의 매개적 역할을 확인하기 위해서 R. M. Baron and D. A. Kenny(1986)의 3단계 모델에 근거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R. M. Baron and D. A. Kenny(1986)에 따르면 매개적 역할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기본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첫째, 독립변인이 종속변인과 유

의한 상관이 있어야 한다. 둘째, 독립변인은 매개변인과 유의한 상관이 있어야 한다. 셋째, 매개변인은 종속변인과 유의한 상관이 있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남녀 대학생으로 나누어 상관계수를 산출한 결과, 남자 대학생은 관계지향성과 대인관계문제 하위요인 중 "사람들에게서 멀어짐"의 문제와 유의한 상관을 보이지 않았고, 여자 대학생의 경우에는 관계지향성과 정서표현양가성이 대인관계문제 하위요인 중 "사람들에게 맞섬"의 문제 간에 유의한 상관이 보이지 않아 이를 제외하고 분석하였다. 이를 확인한 후 정서표현양가성의 매개적 역할을 확인하기 위해 R. M. Baron and D. A. Kenny(1986)의 세 단계 접근법을 사용하였다. 즉, 1단계로 독립변인인 관계지향성이 대인관계문제의 각 하위 요인에 미치는 영향력을 단순회귀분석을 통해서 살펴보았으며, 2단계로 독립변인인 관계지향성이 매개변인인 정서표현양가성에 미치는 영향력을 단순회귀분석을 통해 살펴보았다. 3단계에서는 독립변인인 관계지향성과 매개변인인 정서표현양가성을 독립변인으로 함께 투입하여, 매개변인인 정서표현양가성이 종속변인인 대인관계문제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지와 관계지향성이 대인관계문제에 미치는 유의한 영향이 감소하거나(부분 매개), 사라지는지(완전 매개)를 중다회귀분석을 통해 살펴보았다. 정서표현양가성의 매개적 역할이 나타난 경우, Sobel test를 통해 간접효과의 유의성을 확인하였다.

우선 남녀 대학생으로 나누어 대학생의 관계지향성, 정서표현양가성 및 대인관계문제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는 <Table 2>와 같다. 남자 대학생의 경우, 관계지향성은 정서표현양가성($r=.60, p<.001$)과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다음으로 남자 대학생의 정서표현양가성과 대인관계문제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정서표현양가성은 대인관계문제의 세 하위요인인 "사람들에게 향함"($r=.67, p<.001$), "사람들에게 맞섬"($r=.38, p<.001$), "사람들에게서 멀어짐"($r=.43, p<.001$)의 문제와 모두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다음으로 남자 대학생의 관계지향성과 대인관계문제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 관계지향성은 대인관계문제의 세 하위요인 중 "사람들에게 향함"($r=.69, p<.001$), "사람들에게 맞섬"($r=.24, p<.001$)과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고, "사람들에게서 멀어짐"의 문제와는 유의한 상관을 보이지 않았다.

여자 대학생의 경우, 관계지향성은 정서표현양가성($r=.57, p<.001$)과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다음으로 여자 대학생의 정서표현양가성과 대인관계문제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정서표현양가성은 대인관계문제의 세 하위요인 중 "사람들에게 향함"($r=.59, p<.001$), "사람

Table 2. Correlations among the main variables in male and female college students and basic statistics of variables

Variables	1	2	3	4	5	M여	SD여
Sociotropy							
1. Sociotropy	-	.57***	.70***	.17	.26**	2.61	0.36
Ambivalence over emotional expressiveness							
2. Ambivalence over emotional expressiveness	.60***	-	.59***	.08	.35***	2.65	0.41
Interpersonal problem							
3. Move toward other people	.69***	.67***	-	.20*	.40***	2.32	0.41
4. Move against other people	.24**	.38***	.50***	-	.41***	1.98	0.39
5. Move away from other people	.15	.43***	.52***	.43***	-	1.99	0.54
M남	2.46	2.57	2.16	2.00	1.94		
SD남	0.38	0.45	0.44	0.42	0.57		

note) bottom indicates females(n=121), top indicates males(n=127)

*p<.05, **p<.01, ***p<.001.

Table 3. Mediating effects of ambivalence over emotional expressiveness in the relationship between sociotropy and interpersonal problem of movement toward other people in male and female college students

	b	β	t	Adjusted R ²	F	VIF
Step 1:						
Sociotropy → Movement toward other people	.81	.69	10.70***	.47	114.50***	1.00
Step 2:						
Male Sociotropy → Ambivalence over emotional expressiveness	.72	.60	8.39***	.36	70.46***	1.00
Step 3:						
Sociotropy → Movement toward other people	.53	.45	6.22***	.57	85.08***	1.56
Ambivalence over emotional expressiveness → Movement toward other people	.39	.40	5.43***			1.56
Step 1:						
Sociotropy → Movement toward other people	.80	.70	10.53***	.48	110.97***	1.00
Step 2:						
Female Sociotropy → Ambivalence over emotional expressiveness	.64	.57	7.48***	.31	55.91***	1.00
Step 3:						
Sociotropy → Movement toward other people	.61	.53	7.00***	.53	69.33***	1.47
Ambivalence over emotional expressiveness → Movement toward other people	.30	.29	3.85***			1.47

***p < .001.

들에게서 멀어짐”(r=.35, p<.001)의 문제와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고, “사람들에게 맞섬”의 문제와는 유의한 상관을 보이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여자대학생의 관계지향성과 대인관계문제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 관계지향성은 대인관계문제의 세 하위요인 중 “사람들에게 향함”(r=.70, p<.001), “사람들에게서 멀어짐”(r=.26, p<.001)의 문제와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고, “사람들에게 맞섬”의 문제와는 유의한 상관을 보이지 않았다.

1) 관계지향성과 대인관계문제 중 “사람들에게 향함” 간의 관계에서 정서표현양가성의 매개적 역할

남자 대학생의 관계지향성과 대인관계문제 중 “사람들에게 향함” 간의 관계에서 정서표현양가성의 매개적 역할을 살펴본 결과는 <Table 3>과 같다. 남자 대학생의 관계지향성은 1단계에서는 대인관계문제 중 “사람들에게 향

함”(β=.69, p<.001)의 문제에, 2단계에서는 정서표현양가성(β=.60, p<.001)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며, 각각의 설명력은 47%, 36%였다. 3단계에서 남자 대학생의 정서표현양가성은 대인관계문제 중 “사람들에게 향함”의 문제에 유의한 영향(β=.40, p<.001)을 미쳤고, 관계지향성이 대인관계문제 중 “사람들에게 향함”의 문제에 미치는 영향은 감소하였으며(β=.69, p<.001 → β=.45, p<.001), 설명력은 57%였다. 즉, 남자대학생의 정서표현양가성은 관계지향성과 대인관계문제 중 “사람들에게 향함” 간의 관계를 부분 매개하였다. Sobel test를 통해 간접효과의 유의성을 확인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Z=6.10, p<.001).

다음으로 여자 대학생의 관계지향성과 대인관계문제 중 “사람들에게 향함” 간의 관계에서 정서표현양가성의 매개적 역할을 살펴본 결과는 <Table 3>과 같다. 여자 대학생의 관계지향성은 1단계에서는 대인관계문제 중 “사람들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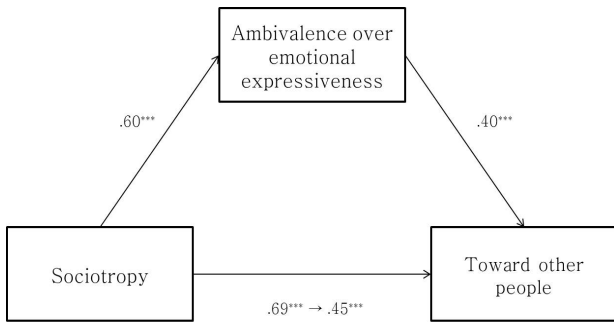


Figure 2. Mediating effects of ambivalence over emotional expressiveness in the relationship between sociotropy and interpersonal problem of movement toward other people in male college student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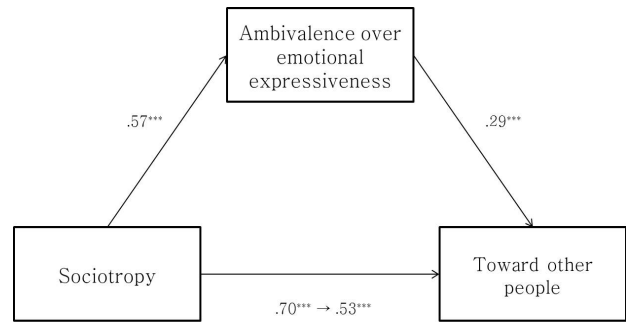


Figure 3. Mediating effects of ambivalence over emotional expressiveness in the relationship between sociotropy and interpersonal problem of movement toward other people in female college students

Table 4. Mediating effects of ambivalence over emotional expressiveness in the relationship between sociotropy and interpersonal problem of movement against other people in male college students

	<i>b</i>	β	<i>t</i>	<i>Adjusted R</i> ²	<i>F</i>	<i>VIF</i>
Step 1:						
Sociotropy → Movement against other people	.27	.24	2.81**	.05	7.88**	1.00
Step 2:						
Sociotropy → Ambivalence over emotional expressiveness	.72	.60	8.39***	.36	70.46***	1.00
Step 3:						
Sociotropy → movement against other people	.03	.03	.27	.13	10.23***	1.56
Ambivalence over emotional expressiveness → Movement against other people	.33	.36	3.45**			1.56

p*<.05, *p*<.01, ****p*<.001.

게 향함”($\beta=.70, p<.001$)의 문제에, 2단계에서는 정서표현양가성($\beta=.57, p<.001$)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며, 각각의 설명력은 48%, 31%였다. 3단계에서 여자 대학생의 정서표현양가성은 대인관계문제 중 “사람들에게 향함”의 문제에 유의한 영향($\beta=.29, p<.001$)을 미쳤고, 관계지향성이 대인관계문제 중 “사람들에게 향함”의 문제에 미치는 영향은 감소하였으며($\beta=.70, p<.001 \rightarrow \beta=.53, p<.001$), 설명력은 53%였다. 즉, 여자 대학생의 정서표현양가성은 관계지향성과 대인관계문제 중 “사람들에게 향함” 간의 관계를 부분 매개하였다. Sobel test를 통해 간접효과의 유의성을 확인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Z=5.16, p<.001$).

2) 관계지향성과 대인관계문제 중 “사람들에게 맞섬” 간의 관계에서 정서표현양가성의 매개적 역할

남자 대학생의 관계지향성과 대인관계문제 중 “사람들에게 맞섬” 간의 관계에서 정서표현양가성의 매개적 역할을 살펴본 결과는 <Table 4>와 같다. 남자 대학생의 관계

지향성은 1단계에서는 대인관계문제 중 “사람들에게 맞섬”($\beta=.24, p<.01$)의 문제에, 2단계에서는 정서표현양가성($\beta=.60, p<.001$)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며, 각각의 설명력은 5%, 36%였다. 3단계에서 남자 대학생의 정서표현양가성은 대인관계문제 중 “사람들에게 맞섬”($\beta=.36, p<.01$)의 문제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고, 관계지향성은 더 이상 대인관계문제 중 “사람들에게 맞섬”의 문제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며($\beta=.24, p<.01 \rightarrow \beta=.03, n.s.$), 설명력은 13%였다. 즉, 남자 대학생의 정서표현양가성은 관계지향성과 대인관계문제 중 “사람들에게 맞섬” 간의 관계를 완전 매개하였다. Sobel test를 통해 간접효과의 유의성을 확인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Z=2.30, p<.05$).

여자 대학생의 경우, 관계지향성과 대인관계문제 중 “사람들에게 맞섬” 간의 유의한 상관성이 나타나지 않아 R. M. Baron and D. A. Kenny(1986)가 제시한 매개효과 검증의 기본조건을 충족시키지 않아 매개효과가 유의하지 않기 때문에 분석을 진행하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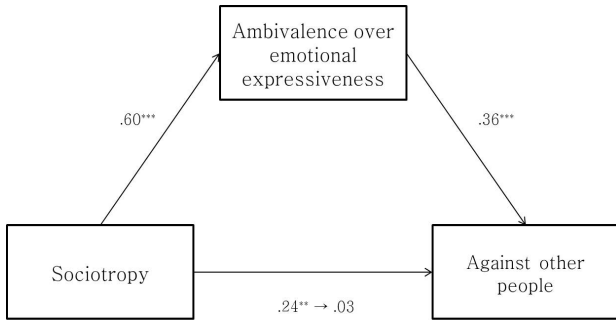


Figure 4. Mediating effects of ambivalence over emotional expressiveness in the relationship between sociotropy and interpersonal problem of movement against other people in male college student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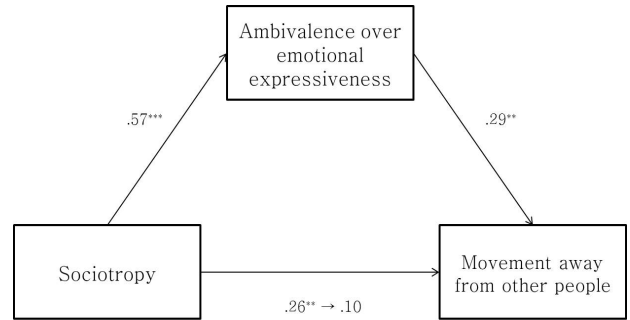


Figure 5. Mediating effects of ambivalence over emotional expressiveness in the relationship between sociotropy and interpersonal problem of movement away from other people in female college students

Table 5. Mediating effects of ambivalence over emotional expressiveness in the relationship between sociotropy and interpersonal problem of movement away from other people in female college students

	<i>b</i>	β	<i>t</i>	<i>Adjusted R</i> ²	<i>F</i>	<i>VIF</i>
Step 1:						
Sociotropy → Movement away from other people	.39	.26	2.95**	.06	8.73**	1.00
Step 2:						
Female (n=121) Sociotropy → Ambivalence over emotional expressiveness	.64	.57	7.48***	.31	55.91***	1.00
Step 3:						
Sociotropy → Movement away from other people	.15	.10	.93	.11	8.48***	1.47
Ambivalence over emotional expressiveness → Movement away from other people	.38	.29	2.78**			1.47

p*<.01, *p*<.001.

3) 관계지향성과 대인관계문제 중 “사람들에게서 멀어짐” 간의 관계에서 정서표현양가성의 매개적 역할

여자 대학생의 관계지향성과 대인관계문제 중 “사람들에게서 멀어짐” 간의 관계에서 정서표현양가성의 매개적 역할을 살펴본 결과는 <Table 5>과 같다. 여자 대학생의 관계지향성은 1단계에서는 대인관계문제 중 “사람들에게서 멀어짐”(β=.26, *p*<.01)의 문제에, 2단계에서는 정서표현양가성(β = .57, *p*<.001)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며, 각각의 설명력은 6%, 31%였다. 3단계에서 여자 대학생의 정서표현양가성은 대인관계문제 중 “사람들에게서 멀어짐”(β=.29, *p*<.01)의 문제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고, 관계지향성은 더 이상 대인관계문제 중 “사람들에게서 멀어짐”의 문제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며(β=.26, *p*<.01 → β=.10. *n.s.*), 설명력은 11%였다. 즉, 여자 대학생의 정서표현양가성은 관계지향성과 대인관계문제 중 “사람들에게서 멀어짐” 간의 관계를 완전 매개하였다. Sobel test를 통해 간접효과의 유의성을 확인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Z*=2.44, *p*<.05).

반면, 남자 대학생의 경우 관계지향성과 대인관계문제 중 “사람들에게서 멀어짐” 간의 유의한 상관이 나타나지 않아 R. M. Baron and D. A. Kenny(1986)가 제시한 매개효과 검증의 기본조건을 충족시키지 않아 매개효과가 유의하지 않기 때문에 분석을 진행하지 않았다.

IV. 논의

본 연구는 남녀대학생들을 대상으로, 관계지향성과 정서표현양가성이 대인관계문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특별히 본 연구는 대학생의 관계지향성과 대인관계문제의 관계를 정서표현양가성이 매개할 것으로 가정하였는데, 이를 탐색하기 위하여 종속변인인 대인관계문제를 하위요인 별로 나누어서 각 문제에 대한 정서표현양가성의 매개효과를 분석하였다. 또한 이러한 관계가 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지 살펴보았다. 주요 결과를 요약하고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일반적으로 대학생들은 관계에 의존하는 성향이 높을수록 더 많은 대인관계문제를 경험한다. 이를 대인관계문제의 하위요인 별로 살펴보면 남녀 대학생 모두 관계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성향이 있는 경우, 타인에게 의존적인 동시에 과도한 인정과 관심을 요구하는 “사람들에게 향함”의 대인관계문제를 공통적으로 보인다. 하지만 “사람들에게 향함”의 대인관계문제를 제외하고 관계에 의존하는 성향이 영향을 미치는 대인관계문제의 하위요인에 따라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남학생은 관계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성향을 가질수록 타인을 지배하고 조종하려는 “사람들에게 맞섬”의 문제를 더 많이 보였고, 여학생은 관계에 지나치게 의존할수록 타인으로부터 멀어져 혼자만의 세계에서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에게서 멀어짐”의 문제를 더 보였다. 이러한 차이는 남학생과 여학생이 가지고 있는 대인관계 방식이 다르다는 것을 나타내주며 특히 관계에 의존하는 성향이 높을수록 이러한 차이가 두드러지는 것으로 해석된다. 성에 따른 이러한 차이는 매개효과의 차이에서도 추가로 논의 될 것이다.

둘째, 대학생들은 정서를 표현하는데 두려움을 느끼고 표현 결과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거나, 정서를 표현하는 것을 억제하는 정서표현양가성이 높을수록 대인관계문제를 더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많은 연구에서 정서표현양가성과 대인관계문제의 연관성이 보고되고 있는 것(H. Choi & K. Min, 2007; J. Kim & Y. Lee, 2011; J. Lee, 2009; K. Lee & B. Kim, 2010; M. Mongrain & L. Vetteuse, 2003; C. Shin et al., 2013)과 같은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다. 대학생들은 정서를 표현하고 싶은 욕구가 내재하지만 이를 억제하며 갈등하는 정서표현양가성이 높을수록 내면에서 일어나는 심리적인 갈등을 해소하지 못하고 대인관계를 건강하게 맺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정서표현에 양가적인 태도를 가진 것이 대인관계문제의 하위요인 중 “사람들에게 맞섬”에는 성에 따라 다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서표현양가성이 높은 남학생은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 타인을 공격하고 비난하는 “사람들에게 맞섬”의 문제를 보이지만 여학생은 정서표현양가성이 높을지라도 사람들에게 맞서는 대인관계문제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사람들에게 맞섬”의 대인관계문제를 보이는 사람들은 타인에게 공격적인 성향을 가진 것으로 볼 수 있다. 외현적 공격성에 초점을 맞춘 앞선 연구결과들(E. Andreou & F. Bonoti, 2010; K. Karriker-Jeffe, V. Foshee, S. Ennett, & C. Suchindran, 2008; W. Troop-Gordon & H. Gerardy, 2012; F. Wang, J. Chen, W. Xiao, Y. Ma, & M. Zhang, 2012)을 살펴보면 남성이 여성에 비해 더 공격적이라는

결과가 다수 나타났다. 이로 미루어 짐작해 볼 때, 여자 대학생들의 정서표현양가성이 높을지라도 다소 공격적인 성향을 나타내는 “사람들에게 맞섬”의 대인관계문제에는 유의한 영향력을 미치지 않는 것임을 추측할 수 있다.

이처럼 정서표현양가성이 영향을 미치는 대인관계문제에 있어 남녀가 다른 양상을 보이는 것은 우선, 정서문제를 표출하는 방법의 다양성과 성에 따른 대인관계 대처 전략 등의 차이점에 그 원인이 있을 것이다. 이는 스트레스 대처 전략에 있어 여성들이 남성들보다 회피 중심적인 대처방법을 더 많이 사용한다는 연구결과들(A. Billings & R. Moos, 1993; K. Kim & K. Chon, 1992; M. Oh, B. Kim, & M. Kim, 2008)로 미루어 짐작해 볼 때, 남성과 여성이 서로 다른 스트레스 대처 전략을 사용함으로써 남학생들은 정서표현양가성으로 인한 “사람들에게 맞섬”의 문제로, 여학생들은 “사람들에게서 멀어짐”의 문제로 서로 다른 영역의 대인관계문제를 경험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정서표현양가성에는 여러 다양한 요소들이 있을 수 있는데 남자 대학생의 대인관계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와 여자 대학생의 대인관계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시사 한다고도 볼 수 있다. L. King and R. Emmons(1990)는 정서표현양가성이 정서를 표현하고 싶지만 할 수 없음, 정서를 표현하고 싶지 않지만 표현 해 버림, 그리고 정서를 표현한 후에 후회함이 모두 포함되는 개념이라고 하였다. 이에 따라 후속 연구에서는 정서표현양가성의 하위요소를 구분하여 접근하고, 하위요인 별로 대인관계문제와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알아보는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셋째, 대학생의 관계지향성이 정서표현양가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관계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관계지향성이 높을수록 정서표현에 있어 더 양가적인 것으로 보고 되었다. 남녀 대학생으로 나누어 살펴보았을 때, 남녀 대학생 모두 높은 관계지향성을 보일수록 높은 정서표현양가성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 대학생들이 관계에 의존하는 성향이 높을 때, 정서 표현에 더욱 양가적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관계지향성이 높을수록 대인관계와 관련된 정서, 생각, 행동들을 억제하게 되거나 반대로 표현하게 된다(D. Jack, 1991; L. King & R. Emmons, 1990; M. Mongrain & D. Zuroff, 1994)는 다수의 서양 연구의 일관된 보고와 같은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다. 과도하게 타인과 친밀한 관계를 맺는데 집중하고 의존하며 거절당하는 것에 대해 두려움을 갖는 사람들은 그들이 생각하는 타인과 이상적인 관계를 맺고자하는 욕구로 인해 자신의 정서를 거리낌 없이 표현하는데 두려움을 가지고

망설일 것이며, 자신이 느끼는 바와 다르게 정서를 표현하거나 표현하고 싶은 마음을 억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렇기 때문에 타인과의 관계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사람들이 정서표현에 있어서 더욱 양가적인 모습을 나타낸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대학생의 관계지향성이 대인관계문제의 하위요인들에 미치는 영향은 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지만, 대학생의 관계지향성이 정서표현양가성에 미치는 영향은 성에 따라 그 유의한 정도가 다르지 않았다. 관계지향성이 정서표현 양가성에 미치는 영향은 남녀 공히 부정적이며 미치는 영향력의 크기도 유사한 수준이었다. 높은 관계지향성이 대인관계에서 어떠한 행동이나 전략으로 대처하게 하는가에는 성에 따른 차이가 있었지만, 높은 관계지향성이 정서 표현에 양가적인 태도에 미치는 영향은 남녀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유의하다는 점은 특기할 만한 결과이다. 관계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성향이 높은 사람들은 타인의 반응으로 자신의 가치를 판단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타인으로부터 수용적인 반응을 이끌어 내기 위해 기분을 맞추려고 노력한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다. 관계지향성이 높은 사람들은 타인의 기분을 맞추려고 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감정이나 욕구를 있는 그대로 표현하는 것에 갈등을 느끼거나 억제할 것이며 이는 남녀를 불문하고 관계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보이는 모습이라는 의미가 있다.

넷째, 대학생의 관계지향성과 대인관계문제 간의 관계에서 정서표현양가성의 매개적 역할을 살펴본 결과, 대인관계문제의 하위요인 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대학생의 대인관계문제를 하위요인 별로 성에 따라 살펴본 결과, 남자 대학생들의 정서표현양가성은 관계지향성과 대인관계문제 하위요인 중 “사람들에게 향함” 간의 관계를 부분매개 하였고, 관계지향성과 대인관계문제 하위요인 중 “사람들에게 맞섬” 간의 관계를 완전매개 하였다. 한편, 여자 대학생들의 정서표현양가성은 남자 대학생들과 마찬가지로 관계지향성과 대인관계문제 하위요인 중 “사람들에게 향함” 간의 관계를 부분 매개 하였고, 관계지향성과 대인관계문제 하위요인 중 “사람들에게서 멀어짐” 간의 관계를 완전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에 따라 각각 다른 대인관계문제 하위요인 영역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하지만, 전반적으로 정서표현양가성은 대학생의 관계지향성과 대인관계문제를 매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많은 국외연구에서 관계지향성과 대인관계문제가 정적인 관련이 있음을 보고하고 있으며(M. Bruch, K. Rivet, R. Heimberg, A. Hunt, & B. McIntosh, 1999; T. Sato & M. Gonzalez, 2009; T. Sato & D. McCann,

2007), 다수의 국내연구에서 정서표현양가성과 대인관계문제가 관련이 있음을 보고하고 있는 것과 맥을 같이하는 결과이다(J. Kim & Y. Lee, 2011; Y. Kim, 2014; S. Lee & J. Lee, 2013; C. Shin et al., 2013). 관계에 의존적이고, 타인의 기분을 맞추거나 걱정하는 성향이 강할수록 상대방의 기분에 맞추기 위해 자신의 감정을 숨기거나 왜곡하여 표현하게 되고, 이러한 정서표현에 양가적인 태도는 자신의 내면의 욕구를 솔직히 표현하지 못하는 2차적인 스트레스로 이어져 대인관계를 원만하고 성숙하게 이끌어내가지 못하고 회피하거나 갈등을 일으키는 등의 문제로 이어진다고 볼 수 있다. 선행연구에서도 이러한 매개효과를 뒷받침하고 있어, 대인관계와 관련된 부정적인 상황에서 스트레스를 경험할수록 보다 높은 수준의 부정적인 정서를 느끼는 경향이 있으며(N. Allen, D. Horne, & J. Trinder, 1996; S. Blatt & D. Zuroff, 1992), 나아가 정서표현에 양가적인 태도를 더 많이 가질수록 보다 높은 수준의 대인관계문제를 경험한다고 한다(J. Lee, 2009; K. Lee & B. Kim, 2010; C. Shin et al., 2013). 이 세 변수의 관계에서 특히 정서표현양가성의 역할은 눈여겨볼 만하다. 본인의 정서를 표현하고자 하는 욕구를 억제하거나 본인이 느끼는 바와는 다르게 표현하는 등 정서를 표현하는데 양가적인 태도를 보이는 사람들은 타인과 맺는 친밀감에 대해 두려움을 갖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대인관계에서 회피전략을 사용한다고 한다(R. Emmons & P. Colby, 1995). 이들은 자신의 감정을 그대로 표현하는 것이 부정적인 대인관계를 초래한다고 믿기 때문이다(M. Mongraine & L. Vettese, 2003). 정서를 표현하는 것에 대한 이러한 신념 때문에 이들은 정서를 통한 의사소통을 잘 활용하지 못하고, 그에 따라 높은 수준의 대인관계문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다. 관계지향성과 대인관계문제의 관계와 정서표현양가성을 함께 살펴 본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었기에 두 변수간의 관계에서 정서표현양가성의 매개효과를 살펴본 점이 의미 있다고 해석된다.

대학생의 관계지향성과 대인관계문제 간의 관계에서 정서표현양가성의 매개적 역할을 살펴본 결과가 함의하는 바를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남자 대학생은 정서표현양가성이라는 정서 문제로 인해 사람들과 맞서는 대인관계문제를 겪고, 여자 대학생은 이와는 반대로 사람들에게서 멀어지는 대인관계문제를 겪는다. 억제되고 왜곡된 정서가 대인관계에서 일으키는 작용에 있어서의 이러한 남녀 대학생의 차이는, 정서 문제를 처리하는 방식에 성차가 있음을 알려주는 결과이다. 남녀 각각에게 적합한 중재나 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해주는 결과이기도 하므로, 남학생에게는 관계지향성과 정서표현양가성의 수

위를 조절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이러한 정서 문제가 공격적 방식으로 분출되지 않도록, 여학생에게는 정서적 억압으로 인해 현실의 대인관계를 회피하지 않도록 스스로 조절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중재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둘째, 관계지향성은 “사람들에게 향함”의 대인관계문제를 직접적으로 불러일으킨 반면, 관계지향성은 “사람들에게 맞섬”이나 “사람들에게서 멀어짐”의 대인관계의 문제에는 직접적인 원인이 되지 않고, 관계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경향성으로 인해 일어나는 정서표현에 양가적인 태도에 영향을 받아 “사람들에게 맞섬”과 “사람들에게서 멀어짐”의 문제로 나타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사람들에게 향함”의 대인관계문제를 보이는 경우 관계지향성의 정도를 조절할 수 있게끔 중재하면 되지만, “사람들에게 맞섬” 또는 “사람들에게서 멀어짐”의 대인관계문제를 보이는 경우 관계지향성의 문제와 더불어 정서표현양가성의 성향까지 인식하고 조절할 수 있도록 중재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셋째, 또한 각 변인들이 미치는 영향의 크기를 성에 따라 구체적으로 살펴보았을 때, 정서표현양가성이 대인관계문제에 미치는 영향력의 크기는 여자 대학생보다 남자 대학생이 큰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이는 즉, 남자 대학생이 여자 대학생보다 정서 문제에 취약하여 정서 문제에 직면하였을 때 보다 높은 수준의 대인관계문제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이다. 따라서 남학생의 대인관계문제를 중재함에 있어 정서표현양가성에 대한 이해와 고려가 더 크게 필요하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자기보고식 측정도구만을 이용하여 조사하였기 때문에 응답자의 반응성이 왜곡되거나 축소, 혹은 과장 될 수 있을 것이다. 후속 연구에서는 이를 보완하기 위해 직접 면담이나 실험 등과 같은 방법을 사용할 필요가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정서 문제와 관련된 변인으로 정서표현양가성만을 고려하였다. 정서 문제에는 다양한 영역이 있고 포괄적이기 때문에 한 가지 변인만으로 관계성을 입증하기 보다는 정서 인식이나 강도, 표현성 등 정서와 관련된 다양한 변인들을 통합적으로 살펴보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후속 연구에서는 다양한 정서 변인들을 고려하여 대학생의 대인관계문제에 미치는 영향을 통합적으로 연구하여 확장해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가 지니는 의의는 대학생의 관계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성향이 정서표현양가성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을 확인함으로써 관계지향성이 자신의 정서를 표현하고자 하는 욕구와 표현한 후의 결과를 두려워하는 감정의 한 형태인 정서표현양가성의

주요한 예측 변인으로 밝혀졌다는 점이다. 또한 대학생의 관계지향성과 대인관계문제 간의 관계에서 정서표현양가성의 매개적 효과를 밝힌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으며, 관계지향성과 대인관계문제의 상관에서 정서표현양가성이 나타내는 매개효과가 성에 따라 다르다는 것을 확인했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본 연구결과는 상담 현장에서 남녀 대학생들이 직면한 대인관계문제가 가지는 양상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대학생들의 내적인 성향과 정서표현성을 고려하여 대학생들의 적응력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데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REFERENCES

- Ahn, E. H. (2012). *The effect of separation-individuation in university students on interpersonal problems: The mediating effect of automatic thoughts*. Unpublished master's thesis.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Kyonggido, Korea.
- Ahn, H. M. (1995). *The effect of interpersonal style on anxiety: Focused on interpersonal style according to sex role*. Unpublished master's thesis.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Korea.
- Allen, N. B., Horne, D. de L., & Trinder, J. (1996). Sociotropy, autonomy, and dysphoric emotional responses to specific classes of stress: A psychophysiological evaluation.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105*(1), 25-33.
- Andreou, E., & Bonoti, F. (2010). Children's bullying experiences expressed through drawings and self-reports. *School Psychology International, 31*(2), 164-177.
- Arnett, J. J. (2000). Emerging adulthood: A theory of development from the late through the twenties. *American Psychologist, 55*(5), 469-480.
- Baron, R. M., & Kenny, D. A. (1986). The moderator-mediator variable distinction in social psychological research: Conceptual, strategic, and statistical considerati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1*(6), 1173-1182.
- Beach S. R., Sandeen, E. E., & O'Leary K. D. (1990). *Depression in marriage*. New York: The Guilford Press.
- Beck, A. T., Epstein, N., & Harrison, R. (1983). Cognitions, attitudes and personality dimensions in depression.

- British Journal of Cognitive Psychotherapy*, 1(1), 1-16.
- Beck, A. T. (1983). Cognitive therapy of depression: New perspectives. In P. J. Clayton & J. E. Barret (Eds.), *Treatment of depression: Old controversies and new approaches* (pp. 265-290). New York: Raven Press.
- Berry, W. D., & Feldman, S. (1985). *Multiple regression in practice*. Sage University Paper Series on Quantitative Applications in the Social Sciences, series no. 07-050. Newbury Park, CA: Sage.
- Bifulco A. (1996). Cognitive coping response to crises and onset of depression. *Social Psychiatry and Psychiatric Epidemiology*, 31(3-4), 163-172.
- Billings, A. G., & Moos, R. H. (1993). Comparisons of children of depressed and nondepressed parents: A social-environmental perspective.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11(4), 463-485.
- Birgenheir, D. G., Pepper, C. M., & Johns, M. (2010). Excessive reassurance seeking as a mediator of sociotropy and negative interpersonal life events. *Cognitive Therapy and Research*, 34(2), 188-195.
- Blatt, S. J. (1974). Levels of object representation in analytic and introjective depression. *Psychoanalytic Study of the Child*, 29(1), 107-157.
- Blatt, S. J., D'Afflitti, J. P., & Quinlan, D. M. (1976). Experiences of depression in normal young adults.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85(4), 383-389.
- Blatt, S. J., & Shichman, S. (1983). Two primary configurations of psychopathology. *Psychoanalysis & Contemporary Thought*, 6(2), 187-254.
- Blatt, S. J., & Zuroff, D. C. (1992). Interpersonal relatedness and self-deficition: Two prototypes for depression. *Clinical Psychology Review*, 12(5), 527-562.
- Bleuler, E. (1950). *Dementia praecox or the group of schizophrenias*. Oxford, England: International Universities Press.
- Bruch, M. A., Rivet, K. M., Heimberg, R. G., Hunt, A., & McIntosh, B.(1999). Shyness and sociotropy: Additive and interactive relations in predicting interpersonal concerns, *Journal of Personality*, 67(2), 373-406.
- Cho, A. R., Kim, H. Y., Oh, K. J., & Khatri, N. (2011). Structure of sociotropy and autonomy and their correlation with psychological adjustment in a Korean university sample.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30(1), 337-347.
- Cho, Y. J., & Park, J. H. (2005). Individuation and interpersonal problems of college students. *The Korean Journal of Human Development*, 12(3), 89-108.
- Choi, H. Y., & Min, K. W. (2007). The study on the validation of ambivalence over emotional expressiveness questionnaire: Comparison of suppression constructs in Korean culture. *The Korean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ity Psychology*, 21(4), 71-89.
- Choi, S. J., Park, J. Y., & Lee, J. J. (1997, June). Korean's Uzzul(boasting) mind and behavior. Paper session presented at Korean Psychological Association Annual Conference, Seoul, Korea.
- Clark, D. A., Beck, A. T., & Brown, G. K. (1992). Sociotropy, autonomy, and life event perceptions in dysphoric and nondysphoric individuals. *Cognitive Therapy and Research*, 16(6), 635-652.
- Emmons, R. A., & Colby, P. M. (1995). Emotional conflict and well-being: Relation to perceived availability, daily utilization, and observer reports of social suppor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8(5), 947-959.
- Erikson, E. H. (1980). *Identity and the life cycle*. New York: Norton.
- Friedman, M. A., & Whisman, M. A. (1998). Sociotropy, autonomy, and bulimic symptomatology. *International Journal of Eating Disorders*, 23(4), 439-442.
- Gotlib, I. H., & Robinson, L. A. (1982). Responses to depressed individuals: Discrepancies between self-report and observer-rated behavior.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91(4), 231-240.
- Gross, J. J., & John, O. P. (1995). Facets of emotional expressivity: Three self-report factors and their correlates.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19(4), 555-568.
- Gross, J. J., & Levenson, R. W. (1993). Emotional suppression: Physiology, self-report, and expressive behavior.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4(6), 970-986.
- Hokanson, J. E., & Butler, A. C. (1992). Cluster analysis of depressed college student's social behavior.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2(2), 273-280.
- Hong, S. H., Park, E. Y., Kim, Y. H., Kwon, J. H., Cho, Y. R., & Jin, Y. K. (2002). Short form of the Korean Inventory of Interpersonal Problems Circumplex scales(KIIP-SC). *Korean Journal of*

- Clinical Psychology*, 21(4), 923-940.
- Hong, S. K. (2000). *Personality psychology first volume*. Seoul, Korea: Bakyoungsa.
- Horney, K. (1992). *Our inner conflict: A constructive theory of neurosis*. W. W. Norton & Company.
- Jack, D. C. (1991). *Silencing the self: Women and depression*.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 Jang, S. J. (2007). *A study of the development of the group counseling program to improve the interpersonal relationship based on the attachment theory and its effect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Yonsei University, Seoul, Korea.
- Jo, S. Y. (1996). *Types of thoughts and interpersonal characteristics related to emotions: Focus on anxiety and depression*. Unpublished master's thesis. Yonsei University, Seoul, Korea.
- Jung, H. J. (2014). *The effect of interpersonal problems on depression in university students: Mediating effect of experiential avoidance and ambivalence over emotional expressiveness*. Unpublished master's thesis. Catholic University of Daegu, Gyeongbuk, Korea.
- Karriker-Jeffe, K., Foshee, V. A., Ennett, S. T., & Suchindran, C. (2008). The development of aggression during adolescence: Sex differences in trajectories of physical and social aggression among youth in rural areas.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36(8), 1227-1236.
- Kim, J. H., & Lee, Y. H. (2011). The difference of ambivalence over emotional expression and interpersonal problems by perceived parents' emotional expressiveness: Focusing on adult offsprings' sex difference. *The Journal of Play Therapy*, 15(3), 15-33.
- Kim, K. H., & Chon, K. K. (1992, June). An analysis of stress and coping experiences by college students. Paper session presented at Korean Psychological Association Annual Conference, Seoul, Korea.
- Kim, K. I., & Kwag, S. G. (1992). Culture-relevant psychiatric practice: Case study of a clinic. *Journal of the Korean Neuropsychiatric Association*, 31(4), 648-671.
- Kim, Y. H. (2014). The effect of attachment on interpersonal problems in college students: The mediating role of ambivalence over emotion expression.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21(11), 291-316.
- King, L. A., & Emmons, R. A. (1990). Conflict over emotional expression: Psychological and physical correlat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8(5), 864-877.
- Kwon, S. M. (1995). Cognitive behavioral description model for university students interpersonal maladjustment. *Students Study: Seoul National University Students Life Research Institute*, 30(10), 38-63.
- Lee, H. W., & Lee, M. H. (2013). Impact of mood awareness, emotional expressiveness, and ambivalence over expressing emotion of college students on self-efficacy. *Journal of Emotional & Behavioral Disabilities*, 29(3), 181-200.
- Lee, J. M. (2009). The relationship among ambivalence over emotional expressiveness, self-efficacy and college students' adjustment. *Journal of Evaluation on Counseling*, 2(1), 1-18.
- Lee, K. H., & Kim, B. H. (2010). Interpersonal ability: Comparison of clusters by emotional clarity, affect intensity, and emotion regulation style.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22(2), 369-384.
- Lee, M. K. (2000). The reliability and factor structure of the Korean version of PSI - 2 (the Personal Style Inventory - 2).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19(2), 305-317.
- Lee, S. H., & Lee, J. Y. (2013). Relationship between nonsupportive parental response and interpersonal problems: The mediating effects of ambivalence over emotional expression and emotional clarity. *The Korea Association of Yeolin Education*, 21(4), 375-394.
- Mongrain, M., & Vettese, L. C. (2003). Conflict over emotional expression: Implications for interpersonal communication. *Society for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29(4), 545-555.
- Mongrain, M., & Zuroff, D. C. (1994). Ambivalence over emotional expression and negative life events: Mediators of depressive symptoms in dependent and self-critical individuals.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16(3), 447-458.
- Oh, M. J., Kim, B. U., & Kim, M. R. (2008). The relationship between housewives' life stress and coping style of middle-aged women: The moderating effects of social support. *Korean Psychological Association: Women*, 13(4), 499-520.

- Park, B. H. (2000). *Separation-individuation level and characteristics of object-relations in self-critical depression and dependent depression*. Unpublished master's thesis.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Kyonggido, Korea.
- Park, C. L., & Al, A. L. (2006). Meaning making and growth: New directions for research on survivors of trauma. *Journal of Loss and Trauma, 11*(5), 389-407.
- Pennebaker, J. W. (1985). Traumatic experience and psychosomatic disease: Exploring the roles of behavioral inhibition, obsession, and confiding. *Canadian Psychology, 26*(2), 82-95.
- Piko, B. (2001). Gender differences and similarities in adolescent's ways of coping. *The Psychological Record, 51*(2), 223-235.
- Robins, C. J., Ladd, J., Welkowitz, J., Blaney, P. H., Diaz R., & Kutcher, G. (1994). The personal style inventory: Preliminary validation studies of new measures of sociotropy and autonomy. *Journal of Psychopathology and Behavioral Assessment, 16*(4), 277-299.
- Sato, T., & Gonzalez, M. A. (2009). Interpersonal patterns in close relationships: The role of sociotropy - autonomy. *The British Journal of Psychology, 100*(2), 327-346.
- Sato, T., & McCann, D. (2007). Sociotropy-autonomy and interpersonal problems. *Depression and Anxiety, 24*(3), 153-162.
- Schaefer, R. (1983). *The analytic attitude*. New York: Basic books.
- Shin, C. Y., Yoo, S. H., & Yun, K. M. (2013). Relationship between maternal response to children's negative emotions and interpersonal problems of university students: A mediating effect of ambivalence over emotional expression.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20*(12), 131-151.
- Solomon, A., & Haaga, D. A. (1994). Positive and negative aspects of sociotropy and autonomy. *Journal of Psychopathology and Behavioral Assessment, 16*(3), 243-252.
- Troop-Gordon, W., & Gerardy, H. (2012). Parents' beliefs about peer victimization and children's socio-emotional development. *Journal of Applied Development, 33*(1), 40-52.
- Wang, F. M., Chen, J. Q., Xiao, W. Q., Ma, Y. T., & Zhang, M. (2012). Peer physical aggression and its association with aggressive beliefs, empathy, self-control, and cooperation skills among students in a rural town of China. *Journal of Interpersonal Violence, 27*(16), 3252-3267.
- Wei, M., Vogel, D. L., Ku, T. Y., & Zakalik, R. A. (2005). Adult attachment, affect regulation, negative mood, and interpersonal problems: The mediating roles of Emotional reactivity and emotional cutoff.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52*(1), 14-24.
- Yonsei University Counseling Center. (2012). *Freshman survey*. Retrieved from http://counsel.yonsei.ac.kr/main/notice_read?number=64.
- Yoon, J. H. (1998). *Internet addiction and its relation to depression, impulsiveness, sensation seeking tendency, and social relationship*. Unpublished master's thesis. Korea University, Seoul, Korea.

Received: July 15. 2016

Revised: September 23. 2016

Accepted: October 23. 2016